때는 두 달 전



모종의 이유로 인해 2달 동안만 히키코모리가 되고자 하였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즐거웠지만,



계속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졌다



두 달이 지났다



은둔생활 부작용으로 인하여 성격이 찐따 오타쿠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마스크가 있어 다행이였다

1-5반부터는 3층에 있다하여



최대한 눈을 깔며 3층으로 올라왔다









참고로 여고이다.



다행히도 다음주는 원격수업이라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 내 차례가 되었다



자기소개?

운 나쁘게도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알고보니 이 곳은 본관 3층이었고

본관은 3학년, 신관은 2학년 별관이 1학년 교실이었던 것이다

어찌저찌하여 반을 찾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수하면 어쩌지?

다음차례

심장 떨려ㅠㅜ



부작용으로 뇌를 거치지 않은 말이 나와버리는 것이다



작년 같은반이었던 갱이가 있었다



찐 특: 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



